

T_M_061

웃당본(토산)

웃손당은 금백조
셋손당은 세멩조.
매알손당 소천국
아들 혼술 적이
어머님 짓가슴
뭉직은 죄목
두술 적인
아바님 삼각쉬 뽑은 죄목.
시술 적인
할으바님 통설대
가달 넹긴 죄목
늬술 적인
할마님 말?라
것대답훈 죄목.
다솟살 적인
동승에 싸와 불효.
으솟술 적에 일가의 불효.
일곱술엔 동닛 존장 불효
무쇠석합 차 놓고
일곱술 난 도령님을
석합 쏘곱에 들여맞져
삼백 일은 으듭 주물쇠 체와
말캐미로
요왕국에 귀양을 보내여.
물 아래도 삼년.
물 위에도 삼년.
연삼년을 살아
요왕황제의 무우나무
잿가지에 걸어지고
밤중 야삼경은
마당 너구리가 즟거
요왕황제국
“큰뜰년아 나고 보라
뭔 소리냐?”
“밸도 송송 들도 송송

물절 소리 사랑사랑
저 걸 보고 주꼽네다.”
“셋뜰년아 나고 보라
뭣을 보고 줄꾸느냐?
“물절소리 사랑사랑
담고망도 바롱바롱
저 걸 보고 주꼽네다.”
“신중아기 나고 보라
뭐을 보고 줄꾸느냐?”
“물절 소리 사랑사랑
무나무 젯가지에
무쇠설캡이 걸어지고
석갑 쏘곱에서
글소리가 나니
저 걸 보고 주꼽네다.”
“큰뜰년아 누리우라.”
못내 누려와.
“셋뜰년아 누리우라.”
못내누려와.
신중아기 누리우라.”
신중아기 올라가
무우남 상가지로
젖가지질 받아
삼시번을 홍글치니
석합이 누려와.
“큰뜰년아 문을 개문호라.”
못을립네다.
“셋뜰년아 문을리라.”
“저도 못을리겠습네다.”
“신중아기야 느가 문을 읊리라.”
우뢰 골은 소리에
백력 골이 둘러치멍
가멍 오멍 삼시번을
설캡을 둘러치니
설갑문이 읊아져.
선관도서가 앗았구나.
삼우풍덕 호고
모개각띠 호여

아름 ?득 금책이여.
좀이 ?득 서붓이여.
삼천강 배릿돌에
일천지년 먹을 골고
마흔^으십 상단골에
상밸문셀 잡고
설은^으십 중단골에
중밸문셀 잡고.
쑤물^으십 하단골엔
하밸문셀 골리잡고
선관도서님은
붕애눈을 부릅뜨고
삼각소를 거슬리어.
요왕황제님이^이
“구신입네까?
생인입네까?”
“구신은 아닙네다.
알손당의 말줏아들롭서
부미조상의 불효가 나
성제간
일가방답이 불효가 나
요왕황제국으로
구양을 오랐습네다.”
“양반의 후례로다.
큰뜰 방으로 들어갑서.”
눈도 거도 아니트고,
“거건, 셋뜰 방으로 들어갑서.”
눈도 거도 아니트고,
“신증아기 방으로 들어갑서.”
설은^으십 니빠디가
허우덩싹 웃이멍 들어가니.
각서출물 대전상을
느는듯이 출려놓고
그는듯이 들러다 놓니.
수도 제두 아니받아.
훈자리만 매풀어.
훈품에 즘자는 법도 엊고
히얏법이 엉어지니

연샘일이 되여도
처부님 처모님에
선신^호는 배도 엊고.
신중부인이 말을 ^호되.
“아바님 어머님전이
설룬 성님들 놓아두고
나는 저런 부체간을
무을 적이
추물식상을 아니받읍네다.
훈품에 즘잔 히얏법도
엇어지고
연샘일이 되여도
처부님 처모님에
선신^호는 배 엊어.
저런 도고 높은 사월
^호십디가?”
“사위 손을 불르라.”
사위 손을 불러다 놓고,
“내 주식이 행실이 나쁘냐?
인물이 부작^호느냐?
처제가 부작^호느냐?
어째 연샘일이 되여도
처부님 처모님에
선신^호는 법이 엇이니?
추물식상도 아니받니 ^호니,
훈품에 히얏법도 엊어지고!”
부름운님이 말을 ^호되.
“멧 해 멧 년을 배고프니
처부님 처모님 생각도
엇입네다.
가속 생각도 엇습네다.”
“게난, 저 국이선
뭣을 먹고 살았느냐?”
“이런 대국이 오란 보니.
소국 음식만 못흡네다.
저는 소국이 살아도
초잔은 청감취.
이잔은 진청취

제삼잔은 주소주.
쇠 잡아도 젓물제
독 잡아도 젓물제.
산 독에 비제 틀고
죽은 독에 옥주 불리고
백매, 백돌레, 백시리.
안으로 열시왕
밖겼드로 삼시왕
천지천왕을 신수프고
밤인 방광, 낮인 영청
신정국 대두퇴로
춤으로 받읍네다.”
황제국이 말을 헌되.
“나 기강을 ?지고
사위 손을 못대접헌리야.”
안으로 열시왕
밖겼디로 삼시왕
천지천왕을 신수프고
각서추물 대전상을 출려
밤인 방광 낮인 영청
맹진국을 지울리고
연삼년을 사위 손을 대접헌니
동창궤도 비고
서창궤도 비고
황제국이 말을 헌되.
“신중아기야,
늘로 얻은 서방이니
돈양그네 어서 떠나라.”
신중부인이 말을 헌되.
“낭군님아.
저 국이 어멍 아방 엇습네까?”
“싯지마는 물 막은 섬증이라
갈 수라 있느냐?”
요왕 패도선을 내여준다.
요왕 황제국이
신중부인?라 말을 헌되.
“예펜의 종부라 훈 것이
열다섯 시오세 이하는

내 조상을 직^호고
열다섯 시오세가 넘으민
놈의 조상을 직^호는 법이로다.
너의 낭군의 조롬을
조창 가라.”
신중부인이 말을 헌^되.
“저는 대국이 살아,
그래 방이도 못^호여보고
짓임도 못틀어보고
소국 가민 뭣을 헌^영
삶네까?”
아바님의 청줌치
어머님의 백줌치를 내여주멍
말을 헌^되,
“주멩기코를 배르씨민
왼 눈에 청골리
느단 눈에 흑골리
보온안개 주지발 너팔.
눈에 보이를 싸 주어
잘 대접을 시기거들랑
청골리, 눈아피
다 걷어주느니라.”
성님네는 열두 부스럼질
내여주멍.
“이 코를 배리씨민
만민단골에 태열태두
종기종창, 십이상감창.
연주나력, 도리버짐, 군버즘
물비리 갹비리
부둘라지, 부양부럼.
열두 승험을 주엉
만민단골에 상을 받으라.
삼싱도에 들어사건
기경, 반경, 경끼, 경풍.
격심, 돌림, 곳불, 손햄을 주엉.
인정을 받으라.”
부부간이 패두선을 둘러타고
훈쌀을 띠우난 산설이 그차지고

두쌀을 띄우난 물설이 끊어져.

금시상을 나오라

말캐미로 배를 부쳐 누리고

알손당에 들어가니

늦인득이정하님이

“물지레 간 보난

요왕황제도 죽으라고 날려분

상제님이 살아오랐습네다.”

아방 어멍왕이 선신을 시기니

“누게가 밥을 주고

누게가 옷을 주고

살아 올 리가 있겠느냐?

동문, 서문, 남문을 잡으라.”

부름운님이

주맹기코를 배리쓰고 시난

어멍 아방 눈에

콩깍지가 든간 흐고

눈을 골려 간다.

아바님 어머님 말을 흐되.

“아들이 실령이거들랑

눈아필 걷어도라.”

주맹기코를 호르쓰니

눈아필 걷습네다.

문을 열러

부름운님이

아바님 어머님에

선신문안을 흐니,

아바님이 말을 흐되,

어머님이 말을 흐되,

“어떻 흐연 살아 오란디?”

“요왕황제국이 들어가

신중부인 절인 부친 무어

금시상이 들고 나왔습네다.”

“계난 어디 시니?”

“신중부인은 올래에 있습네다.”

“돌양 들어오거라.”

들어가니

씨아바님 씨어머님에

선신문안을 흐여
신중부인은 아길 일곱을
찻듯 ?치 배여놓고,
아방 어멍이 말을 흐되,
“할로영산은 도영주산을 올라사
대강녹, 소강녹, 대돛, 소돛,
잡아다가
석들 열흘 백일
호문연 대잔칠 시켜.”
아바님 어머님이 말을 흐되,
“어릴 적 짓카른 아기라
훈디 살 수 웃다.
토산 서당팥디 좌정 흐영
마흔 으 dop 상단골
설은 으 dop 중단골
쑤물 으 dop 하단골
골리잡아
삼월 초일뢰, 예릴뢰, 쑤무일뢰.
불유월 초일리, 예릴뢰, 쑤무일뢰
?슬 석들, 당후건
삼구월 초일뢰, 예일뢰, 쑤무일뢰
동상삭이 당후건
동짓들 초일뢰, 예릴뢰, 쑤무일뢰
만민단골에 서천미련 받으라.”
부름운님과 신중부인님이 짓갈라.
아바님 어머님에 하직 흐여
군문밖겼 나사니
신중부인이 말을 흐되.
“낭군님이랑그네
서당팥딜 가시면
날랑 할로영산 유산 구경을 흐고
가오리다.”
신중부인은 할로영산을 올라 사
해구무니, 들구무니, 오백장군.
영실목, 백록담을 구경하고
큰장오리, 족은장오리, 태역장오리
구경을 흐니
칠년 한기가 되고

물이 엊어.
안은 므르고
도찌자국에 보니, 물이 이시니
뽀래기로 물을 뿐아먹어.
도찌술이 콧궁기레 드니
산쟁이 미싱불로 그시리난
먹은간 씬간 존경내가 난
서당팥디 늘려드니
부름운님은
마흔오십 상단골
설은오십 중단골
쑤물오십 하단골에
서천미련을 받암구나.
“대부인이 오는디 부정호다.”
“부정호 일 엇습네다.
도찌자국에 물이 이시니
뽀래기로 물을 뿐아먹어
돗술이 콧궁기레 드난
미싱불로 기시리난
먹은 간, 씬 간.
존경내가 납니다.”
“나를 생각호여신우제
대부인이 부정호 일
왜 호리요?”
남도 물도 엇인
마라도 가다귀섬으로
귀양을 마련호여
부름운님은 저산국뜨님애기
새로금상 훗첩을 호여
들어오란
“저만호 남인이
전처가 으시리까?”
전처는 행실이 괴씸호니
가다귀섬으로
귀양을 보내였습네다.”
“전처 구박호민
율법으로 다시립네다.
예진 머리, 신은 신발.

입은 이복에
저도 가리다.
예주라 혼 것은
흐를 열번 죽을 일도 허곡
살 일도 흡네다.
그만죽 혼 일에
성님을 귀양을 보내여시니
나도 가오리다.”
부름운님 말을 허되.
“석들 열흘 백일 되민
귀양 풀려 오리외다.”
멘문대짐을 허여.
석들 열흘 백일이 되여도
귀양을 아니풀려오니
새로금상이 말을 허되.
“낭군님아, 이나 어찌 허오리까?”
“어첨! 몽롱 허였노라.
게멘, 삼만관속을 잽히라.”
새로금상이 말을 허되.
“낭군님이 가정 허민
불란흡네다.
소녀가 가오리다.”
지성기 일곱. 삼보살 일곱.
걸래 일곱 거느리고
패두선은 둘러타고
절 우으로 배를 붙여
마라도 서뿔을 가 보니.
신중부인이 개삼싱이 누리고
애기 일곱으로 환싱을 허니.
“설룬 성님!
귀양풀리게 왔습네다.”
“누게라 되느냐?”
새로 온 금상이 됩네다.
후처로 오랐습네다.”
“그만죽 혼 일에
귀양을 보내여시니
죽어도 아니갈로다.”
새로 금상이 말을 허되.

“예주는 지아잣법이 있습네다.

나 인정을 봉

옵서, 가게.”

“걸랑 기영 ھ라.”

삼보살 일곱, 지성기 일곱

걸레 일곱 거느려.

아기덜을 문딱 업어.

패두선을 둘러타고

모실개 알드르

맬캐로 오라

배를 붙여,

“설룬 성님!

애기들 낳멍

석들 열흘 백일을 살젠 ھ난.

입이 무릇 아니굽붑네까?

애기 ھ나 업어 ՞정

성님이랑그네

밤이랑 연불

낮인 퉁즈 소리로

개보말 잡아먹으멍

토산 서당팟을 가옵시다

아기들은 내가 업고

웃한길로 가오리다.”

신중부인은 번내 하강물로

연불신내 옥통제 맞입네다.

난드르 조순 ՞리로

연불신내 옥통제 맞입네다.

열리 당캐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중문이 배린포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큰개물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월평동 동오물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강정 세배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법환이 막숙으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서귀포 수전개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볼목리 선양 앞으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쇠돈 소금막으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망장이 연불신내 맞입네다.
공천포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꾀미 상코지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제산포로 여불신내 맞입네다.
풀개 검은코지로
연불신내 맞입네다.
서당팥디 가니
연불 ほ니, 신내 ほ나가
떨어져
새로 금상은
산방 뒤에 부름잔밭
오란 보난.
흰 삼동, 검은 삼동
익어시니
애기를 풀어놓고
삼동 타 먹단 보난
해는 일락서산 일모 ほ고
걸추릿선비가,
애기덜은 하영 날 법 ほ되
인물이 좋으니,
심젠 ほ여가난
물을 둘러타고
애기덜은 물 우이
다 쫓어 놓완.
서당팥디로 오란
“성님, 애기 맡읍서.”
ほ나 두개…… 세여간다.
애기가 오ս개 매긴다.
“애기 ほ난 떨어져시니
범의 입에 갔는가?
곰의 입에 갔는가?

다심아방 눈물 흘럼는가?

다심어멍 놀랠 외염신가?"

새로금상이 말을 허되.

"설룬 성님아.

내 민심을 7정

경흘 리가 있겠수가?"

새로금상이

예복방이 늘려 들어

예복입성 다 벗어두고

남복방이 늘려들어

남복입성 출려.

대정 대매 둘러타고

산방구절 부름잔밭디

애기 츄지레 간 보난.

삼동낭게 애긴 눈을 소와,

비새 골이 울엄구나.

"애기야!"

느리와 놓고

물 우티 태와 앗젼

서당밭디 오라.

"설룬 성님, 애기 맡읍서."

본대 빌해름광

희맹이 궂인 애기

큰어멍 던데떡 주어도

소리 못내그치고

족은어멍 좀매떡 주어도

소리 못내그치고

아바님이 먹을 진지

강답에 강나록

낮인 닷말,

어머님이 먹을 진지

무답에 무나록

이여방애 져가되

소릴 못내그쳐.

"이 애기는 부려

줏맥임징이여,

줏개임징이여,

정잇아장 삼삼음징이여"

소리 못내그쳐.
대정아장 미정
드심정 ھ되
소리 못내그쳐.
“던데정. 조매기정.
아왜기정 ھ여가되
소리 못내그집네다.
훈담 넘어
외돌괴로 좌정 ھ여
유월 나건 초일뢰, 예일뢰
쑤무일뢰
만민단골에 서천미련 받곡
동짓들이 나사건
초일뢰, 예릴뢰, 쑤무일뢰
만민단골에 서천미련
상을 받아.

제일 3월 7일, 17일, 27일
6월 7일, 17일, 27일
9월 7일, 17일, 27일
11월 7일, 17일, 27일

<서귀읍 서귀리 남무 56세 박생옥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30-637.